



미 증시, 반도체 업종 부진에도 성장, 테크주 강세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12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업황 부진 우려 확산에 따른 마이크론테크놀로지(-6.4%) 등 반도체 업종 약세, 7 월 생산자물가 급등 소식에도, 인플레이션 고점 도달 인식 속 실적 개선 기대감에서 기인한 애플(+2.1%), 마이크로소프트(+1.0%) 등 대형 성장 및 테크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04%, S&P500 +0.30%, 나스닥 +0.35%). 업종별로는 헬스케어(+0.8%), 기술(+0.6%), 커뮤니케이션(+0.4%) 등이 강세, 에너지(-0.5%), 소재(-0.2%), 산업재(-0.2%)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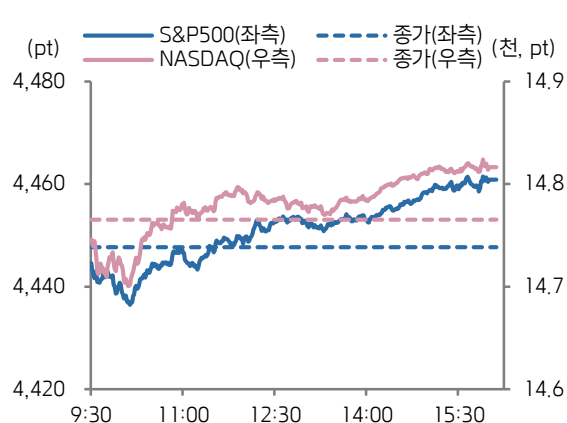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37.5 만건으로 전주(38.7 만건)에 비해 감소했으며, 예상치(37.5 만건)에 부합하면서 3 주 연속 하락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7 월 생산자물가는 7.8%로 전월(7.3%) 및 예상치(7.3%)를 모두 상회하며 2010 년 11 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 근원 생산자물가도 6.2%로 전월(5.6%) 및 예상치(5.6%)를 모두 상회. 다만, 전일 발표된 7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번 생산자물가 서프라이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미국 증시 평가

7 월 고용 지표 호조 이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테이퍼링 실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 과거에는 언급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충족 조건(ex, 8~9 월 고용 90 만건 이상) 및 시기(ex: 9 월 발표, 10 월 실행 등)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테이퍼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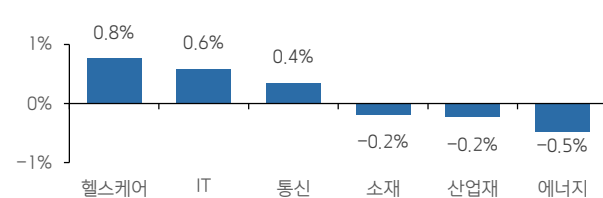
연준 내 균형이 매파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연준이 사전에 신호를 주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대응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에도 고용을 포함한 경제 정상화 기조가 유효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정상화 사이클 진입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지양할 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일부 위원들만 일정 구체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공식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때까지는 연준 정책 불확실성이 유발하는 노이즈가 지속될 수 있음에 유의.

S&P500&NASDAQ 일종 차트(8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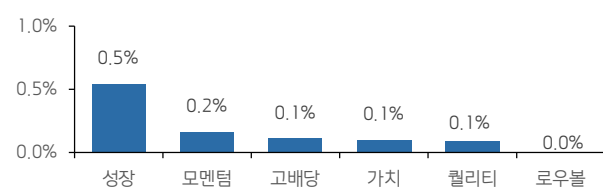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1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12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8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3.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추가 약세 여부 2.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 진정 가능성 3. 국내 연휴를 앞둔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심리 강화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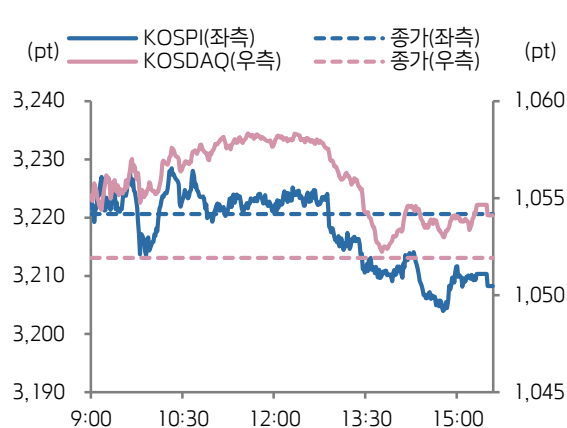
12 일(수) 코스피는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 완화에도 메모리 업황 둔화 불안 증폭에 따른 삼성전자(-1.9%), SK 하이닉스(-4.7%) 등 반도체 업종의 주가 급락 지속 여파로 하락 마감. 다만, 개별 이슈 및 수급 쏠림 현상으로 자동차, 2 차전지 등 여타 주력 업종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 급락 발 지수 하방 압력은 제한적으로 작용(코스피 -0.4%, 코스닥 +0.2%). 업종별로는 통신(+3.0%), 섬유 의복(+1.8%), 운수장비(+1.0%) 등이 강세, 의료정밀(-2.5%), 전기전자(-1.5%), 종이목재(-1.2%)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 조 8,775 억원 순매도, 기관과 개인이 각각 542 억원, 1 조 8,241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성장 및 테크주를 중심으로한 미국 증시 강세에도,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의 실적 불확실성 여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체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최근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도세가 강화된 배경은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도한 측면이외에도, 1,160 원대를 터치한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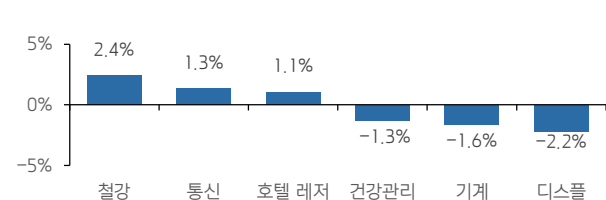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외국인 매도 수준은 반도체 업종 뿐 아니라 여타 주력 수출 업종들의 견조한 실적 추이 전망을 감안 시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물론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로이 추가 급락세를 연출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투심 회복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이를 감안 시 금일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주가흐름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및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들 간에 차별화 장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8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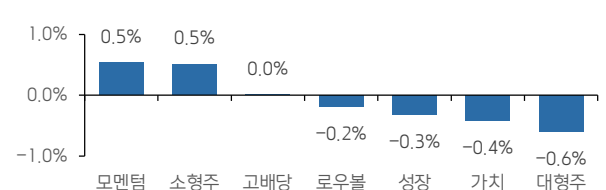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1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8월 12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